

‘가나다 전화’ 질의 응답

질문 “그래, 내가 치울게.”와 “이것이 무슨 뜻일까?”의 두 예문에서 둘 다 된소리로 발음되면서도 각각 예사소리와 된소리로 구분하여 적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김지현, 서울특별시 도봉구 번동)

답 같은 된소리로 발음되면서도 어미 ‘-(으)리게’와 ‘-(으)리카’를 각각 예사소리와 된소리로 구분하여 적는 근거는 한글 맞춤법 제53항의 규정입니다. 즉, 어미 ‘-(으)르결, -(으)리게, -(으)르세, -(으)르세라, -(으)리수룩, -(으)르시, -(으)르지, -(으)르지니라, -(으)르지라도, -(으)르지어다, -(으)르지언정, -(으)르진대, -(으)르진저, -을시다’ 등은 예사소리로 적되, 다만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 ‘-(으)리카, -(으)리꼬, -(스)비니까, -(으)리카, -(으)리쏘냐’ 등은 된소리로 적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도록 한 제5항 2의 규정에 따른다면, ‘-(으)르께, -(으)르결, -(으)르쩌……’ 등으로 적어야 옳은 듯이 보이지만, 비의문형 어미의 경우는 ‘-(으)르’과 어울려 쓰이는 일정한 조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으)르결, -(으)르지’의 경우는 ‘-(으)르결, -는지’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연관성이 있는 어미들의 표기를 통일한다는 점에서 예사소리로 적을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의문형 어미의 경우는 ‘-(스)비니까, -(으)리카’와 같이 받침 ‘ㄹ’ 뒤가 아닌 환경에서도 항상 ‘까’라는 된소리로 나타나기 때문에 역시 표기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된소리로 적을 필요가 있습니다.

‘ㄹ’ 받침 뒤라는 환경에서 똑같이 된소리로 발음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형태소가 ‘ㄹ’ 받침 뒤가 아닌 환경에서 예사소리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는 계열의 형태소들(비의문형 어미)은 예사소리로 적고,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는 계열의 형태소들(의문형 어미)은 된소리로 적어야 합니다. (권인한)

질문 ‘있다’의 명사형 표기로 ‘있음,’ ‘있슴’ 중에서 어느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울러 ‘있습니다, 있사오니’의 경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김중환, 인천직할시 서구 석남 2동 의 다수)

㉮ '있다'의 명사형 표기로는 '있음'이 올바른 것입니다. '-(으)ㅁ' 명사형 어미의 표기는 자음 뒤에서 '-음,' 모음 뒤에서 '-ㅁ'으로 적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다, 없다' 등과 같이 'ㅍ, ㅂ' 받침 뒤에서는 명사형 표기를 '-음'으로 적든, '-슴'으로 적든 발음상으로는 전혀 구별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읍니다,' '-습니다'를 '-슴니다'로 통일시킨 표준어 제17항의 규정에 잘못 유추되어 '있슴, 없슴'으로 적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사오니'의 경우에도 '있아오니, 없아오니'로 잘못 적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ㅍ, ㅂ' 받침 뒤에서는 각 경우의 발음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하여 'ㄱ, ㄷ' 받침으로 끝나는 예들의 활용 양상을 표로 보이겠습니다.

	명 사 형	종결 어미	연결 어미
'먹다'	먹음(○)	먹습니다(○)	먹사오니(○)
	먹슴(×)	먹읍니다(×)	먹아오니(×)
'얻다'	얻음(○)	얻습니다(○)	얻사오니(○)
	얻슴(×)	얻읍니다(×)	얻아오니(×)

위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ㄱ, ㄷ' 받침 뒤에서의 명사형 표기로는 '-음'이 옳고, 종결/연결 어미의 표기로는 '-습니다, -사오니'가 옳은 것입니다. 결국 'ㅍ, ㅂ, ㄱ, ㄷ……' 등 모든 환경에서 표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명사형은 '-(으)ㅁ,' 종결 어미는 '-(스)ㅂ니다,' 연결 어미는 '-(사)오니'로 적어야 옳은 것입니다. (권인환)

㉮ '設立年度, 一次年度' 등을 두음 법칙에 맞게 적으려면, '년도'로 적어야 옳은지, '연도'로 적어야 옳은지 알려 주십시오.

(양혜경, 전자신문 교열부)

㉮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여, 요, 유, 이'로 적고, 단어의 첫머리가 아닐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도록 한 것이 한글 맞춤법 제10항 두음 법칙 규정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10항에는 단어의 첫머리가 아닌 경우에도 두음 법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붙임] 규정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즉,

‘新女性, 空念佛, 男尊女卑’와 같이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는 뒷말의 첫소리가 ‘ㄴ’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신여성, 공염불, 남존여비’로 적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에 따르면 ‘設立年度, 一次年度’는 각각 ‘設立+年度, 一次+年度’의 구조로 분석되는 합성어이기 때문에 ‘설립연도, 일차연도’로 적어야 옳습니다. 다만, 한글 맞춤법 해설(p.17)에서 예외를 인정한 것처럼 같은 ‘年度’라 하더라도 ‘新年+度, 舊年+度’와 같이 분석되는 합성어에 있어서는 ‘신년도, 구년도’로 적어야 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권인한)

〔圖釋〕 저는 미술 계통의 잡지를 만드는 출판사의 편집 담당자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미켈란젤로의 벽화를 다룬 글을 쓰다가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즉 미켈란젤로의 벽화가 무덤에 그려진 것이라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묘지에 그려진 것이라고 해야 하는지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표현인지요? 아니면 둘 중에서 어느 쪽을 써도 무방한 것인지요?

(김혜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동)

답 이 문제는 결국 우리말 어휘에서 고유어 ‘무덤’과 한자어 ‘묘지’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문제로 귀착됩니다. 두 어휘 사이에는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고유어 ‘무덤’에 대하여 국어 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습니다.

무덤 : 시체, 유골을 땅에 묻고 일정한 표시를 한 곳. 흔히 곁에 흙을 두두룩하게 모아 놓음.

이런 사전상의 풀이를 고려해 볼 때 이 말에 대응하는 한자어는 ‘묘지(墓地)’가 아니라 ‘묘(墓)’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묘지는 무덤 근처를 둘러싸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벽화가 그려진 곳을 정확히 파악하여 알맞은 어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우)

〔圖釋〕 다음의 문장이 어디가 왜 틀렸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간은 신(神)을 숭배하지만 도전하기도 한다.”

(고동욱,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답 일반적으로 어떤 언어에서나 중복되는 요소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

어서 “나는 해업을 치고 나는 고기를 잡았다”는 문장에서 중복된 요소 ‘나는’을 생략해도 전혀 의미 전달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위 질문의 문장도 일견 ‘신을’이라고 공통 요소가 중복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완전히 중복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숭배하다’ 앞에는 대격을 표시할 때 조사로 ‘을/를’이 쓰이지만 ‘도전하다’ 앞에는 ‘에/에게’가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신을 숭배하지만 신에게 도전하기도 한다.”라고 해야 합니다. 결국 이 문장은 생략이 불가능한 요소를 생략해서 일어난 비(非)문법적 문장의 예입니다. (김경우)

㉮ 신문에서 ‘뜨거운 감자’라는 말이 쓰인 것을 보았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박만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답 ‘뜨거운 감자’는 영어의 ‘hot potato’를 직역한 말로 ‘너무 민감해서 아무도 다루기를 원하지 않는 어려운 문제’를 의미하는데 주로 정치적인 문제나 사회 문제에 쓰입니다. A Concise Dictionary of Slang and Unconventional English(1989, edited by Paul Beale, London: Routledge)에 의하면 이 말은 1954년경 미국 영어에 도입, 1965년경에 구어로 정착되었다고 합니다. (박민규)

㉮ ‘한번(-番)’의 띄어쓰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대삼,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 10동)

답 ‘번(番)’이 차례나 일의 횟수를 나타내는 의존명사로 쓰인 경우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 등과 같이 띄어서 써야 합니다.

그러나 ‘한번’이 ‘한번 해 보다.’ ‘한번 없지른 물은 다시 주워 담지 못한다.’ ‘한번 귀면 떨 줄 모른다.’ 등에서와 같이 ‘한 번’과는 다른 의미로 의미상 한 단위로 쓰일 때는 하나의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합니다. ‘한번 해 보다.’도 ‘일단 시도해 본다.’는 의미로 쓰이지 않고, ‘두 번 해 본다.’와 같이 ‘두 번, 세 번……’ 등으로 바꾸어서 뜻이 통하는 경우에는 띄어서 써야 합니다. (박민규)